

Ch 5.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들은 필요한가?

By 한수연 (9/24/10)

A. 주제: 예수는 실제로 기적을 행했을까?

- 기적이 발생하는 두 가지 이유 (기적에 대한 성서의 입장)
 1.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(revealed words of God)
 2. 예수는 인간의 형태를 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

B. 문제점:

1. 기적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가? or
허구이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을 원하는 인간들의 심리적 요구에 의한 결과인가?
2. 기적이란?
 - 모든 기적에는 문화이식적 (Acculturation) 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
 - => 우리 자신이 신비한 비전 (Vision)의 작자/주체 => 따라서 초자연적 현상은 객관적 사실이 아님 (ex. 예수와 성모마리아는 이슬람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)
 - 고도의 주관성 -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, 우리가 보도록 문화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
 - 소원성취적 성격과 자기중심적 성격

C. 논점: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의미

1.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사실인가?
 - 아니면 기독교의 본질과 관계 있는 그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?
 - 4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기적(약 30 개)들은 그 통계와 묘사와 숫자에서 모순과 부정확성을 보인다
 -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초자연적 기적을 행한다.
2. 포스트모던시대에 사는 21 세기의 크리스찬들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?
 - ⇒ 정신이 거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숭배하는 신이 될 수 없다.
 - ⇒ 기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.
 - ⇒ 그리스도의 실재를 발견하려면 전근대적 세계의 문자주의를 넘어서야 한다.
3. 성서 안에 스며든 초자연적인 이해관
 -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우주가 3 층으로 되어있다고 믿던 사람들
 - 우주의 자연법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던 것으로 생각
 - 성서의 저자들은 기적의 행위를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귀속시킴
4. 기적을 일으키는 신
 - 초자연적이며 어버이 같이 돌보는 신의 이미지 => 돌봐지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함
 - 이러한 신관은 의존성과 죄의식을 동반한다=> 신을 기쁘게 만들거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 안됨
 - 신의 호의/보복 =>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는 신 => 우리의 성숙성/독립성을 방해한다

- 신에게 의존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
- 기적을 일으키는 신은 즉흥적/때로는 비도덕적 : 우리 삶을 지배하는 법칙이 기적에 의해 종종 깨어지므로 우리는 안정되지 못하며 다만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조작할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됨=> 불안의 증폭

5.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종류들

- Contrary to common belief, 기적은 성경의 특정한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다
- 모세와 엘리야 => 기적을 수반한 대표적 인물들: 항상 유대민족의 이익을 위한 기적을 행함
- 엘리사를 놀리는 42 명의 아이들을 찢어죽인 곰: 기적은 반드시 도덕적이거나 의로운 것이 아니었다.

6. Theodicy (신정론)

- 악의 현실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?
- 만일 하느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는 왜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행하지 않는가?

Ex) 전염병에서의 죽음, 기아, 자연재해, 유대인 대학살, 인생의 고통문제

- 하느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다는 주장은 비도덕적이며 변덕스러운 신을 만든다
- 하느님에게 초자연적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무능하고 나약한 신을 만든다
- 신은 무능한가? 아니면 비도덕적인가?=> 신정론의 딜레마

7. 문자주의적 입장이 직면한 문제: 문자주의적 입장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취해도 무지(ignorance) 일뿐이다

- 아브라함, 모세의 이야기들은 글자로 기록되기 전까지 각각 900 년과 300 년동안 구전되었다.
구전과 기록의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많음(무지의 결과)

Ex) 홍해의 기적 - 여러가지 물리적 모순, 히브리어 번역의 문제 (yam Suph- 갈대바다) => 12 세대가 지나며 미화되고 신성시 되어 기적으로 변형되어 전해짐=> 예수의 기적도 이런 변화를 거치지 않았을까?

8. 기적의 재해석

- 기적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건이 아닌 강렬한 내적 체험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외적인 시도
- 예수의 체험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적만 벗겨내고 삭제할 수 있을까?
=> 포스트모던 시대에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는 기회
- 기독교의 궁극적 진리와 문자적 개념을 분리시키는 새로운 영역의 필요성

D. 생각해 볼 점

- 성경의 저자들이 기적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?
- 기적을 벗겨내고 나면 남는 예수의 모습은?